

#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

(목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 한 새사람의 창조와 산출

성경: 엡 1:9, 11, 3:9, 2:15-16, 4:22-24

- I.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인도하는 동역자들과 장로들은 주님의 회복이 그들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회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123쪽)
- A. “나는 모든 동역자들과 장로들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116쪽)
- B.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의 낡은 신학이나 회복에 대한 낡은 이해로 인해 현재의 주님의 회복에 관하여 제한받지 않기를 바란다.”(116쪽)
- C. 주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한 몸과 한 새사람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고전 12:12, 엡 4:4, 2:15-16, 4:24.
- D.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한 새사람이다 — 엡 1:9, 11, 3:9, 롬 8:29, 딤후 1:9, 엡 2:15-16, 4:22-24.
1.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강조점은 생명에 있음에 비하여, 교회가 새사람이라는 것의 강조점은 인격에 있다.
  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새사람인 교회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 E. 성경은 한 새사람이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 엡 2:15, 4:24, 골 3:10-11.
1.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새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적인 한 새사람의 부분들, 곧 구성 요소들이다.
  2. 한 새사람은 단체적인 하나님-사람, 곧 모든 하나님-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모든 하나님-사람들을 함께 둘 때, 우리는 한 새사람을 얻는다.
- II. 하나님의 시(詩), 곧 결작품인 새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 엡 2:10, 15-16.
- A.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자기 육체 안에서’와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두 가지 표현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자기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곧 마귀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히 2:14), 죄(롬 8:3, 요 1:29), 타락한 사람의 육체(갈 5:24), 코스모스 곧 사탄의 악한 체계인 세상(요 12:31), 옛사람(롬 6:6)으로 대표되는 옛 창조물, 분리시키는 율법의 규례들(엡 2:15)을 종결하셨다.
  2. 영역과 요소와 본질이신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

- a. 그리스도는 한 새사람인 교회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새사람이 창조된 영역이시자 요소와 본질이시다.
  - b. 그리스도는 한 새사람의 요소와 본질 자체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과 한 실체가 되게 하신다 — 비교 골 3:10-11.
- B. 새사람을 창조하는 데에서, 먼저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 다음 옛사람을 십자가로 끝내신 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를 새로운 실체,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이 되게 하셨다 — 롬 6:6, 고후 5:17.
- C. 그리스도의 창조하는 죽음을 통해 창조된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형성된 몸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한 새사람’과 ‘몸’은 동의어이며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 엡 2:15-16, 골 2:19, 3:10-11.

**III.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인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심으로써 그분 자신 안에서 새사람을 창조하셨다 — 엡 2:14-15상.**

- A.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할레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음식 규정의 규례들과 같은 의식적(儀式的)인 계명의 율법이다.
- B. 규례들은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인데, 이것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킨다.
1.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생활과 경배에 관한 모든 규정들, 곧 민족들을 나누었던 규정들을 없애 버리셨다 — 엡 2:15, 골 2:14.
  2. 바벨 시대부터 인류는 생활과 경배의 방법에 관한 규례들 때문에 분열되어 왔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생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벨을 이겨야 한다 — 창 11:1-9.
  3.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규례들과 풍습들과 관습들과 삶의 방식들과 경배의 방법들이 있게 되었다.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차이점들이 인류를 나누고 흩어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 왔다.
  4. 규례들의 주요 요소들 중 하나는 언어이다. 우리의 언어 자체가 규례가 될 수 있다.
    - a. 오순절날, 언어 때문에 생긴 분열이 극복되었고 한 새사람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 행 2:1-11.
    - b. 우리가 언어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규례들에 관련된 우리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 행 6:1과 각주 1.

**IV. 연합된 영 안에,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의 연합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기 위해 규례들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 엡 2:18, 22, 4:23-24, 6:18.**

- A. 십자가는 그 영계 지위를 드리기 위해 규례들을 폐했고,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간다 — 엡 2:18.
1. 우리에게 규례들이 있다면 그 영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 영이 있다면 규례들이 없을 것이다.
    - a. 교회생활은 규례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영으로 이루어진다.
    - b. 교회는 그 영의 복사판이다 — 슥 4:2-6.
    - c. “영(Spirit)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영(Spirit)이 더 있을수록 교회도 더 있다.” — 고전 12:13, 엡 4:4.
  2.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규례이다 — 비교 고후 3:6.

- B. “할레나 무할레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입니다.” — 갈 6:15.
1. 중요한 것은 오직 새 창조물인 새사람, 곧 신성한 본성을 가진 생명의 걸작품이다 — 갈 6:15, 엡 2:10.
  2. 새 창조물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도록 하는 것이다 — 엡 3:16-17.
  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실재화되실 때, 우리는 새 창조물인 새사람이 된다 — 갈 6:18, 엡 4:23-24.

V.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 엡 2:15, 4:22-24, 골 3:10-11.

- A. 옛사람 안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졌던 것이 새사람 안에서 회복된다 — 창 11:5-9, 행 2:5-12, 골 3:10-11.
1. 옛사람 안에서 사람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졌지만, 새사람 안에서는 모이고 하나가 된다.
  2. 세상에서는 사람이 차이가 나고 개인주의적일수록 더 좋지만, 이것은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된다.
  3. 옛사람을 벗는 것은 나누어지고 흩어진 사람을 벗는 것이며, 새사람을 입는 것은 모이고 하나 된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 엡 4:22, 24.
- B.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문화나 국적에 속한 그 무엇도 우리의 근원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 비교 골 3:10-11.
1. 세상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영예의 근원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영예를 잃어버렸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영예는 그리스도이고 진정한 하나이다.
  2.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합당한 교회생활을 가지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C.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소유하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 엡 3:17-19, 골 3:4, 10-11.
- D. 한 새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 올 것이다 — 계 11:15.
- E.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새사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때이다. 이 한 새사람은 이 땅에 완전히 출현될 것이다 — 엡 4:11-13, 24.
1. 세계정세는 한 새사람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으켜져 왔다.
  2.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한 새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이끌어 오기 위한 것이다.
  3.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자의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지방의 성도들이 실재와 실행에 있어서 한 새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 F. 한 새사람이 온전하게 될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때일 것이고, 온전하게 된 새사람은 신부가 될 것이다 — 계 19:7.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규례들을 없애 버리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들과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을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규례들도

처리하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의해 죄들과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과 규례들이라는 다섯 범주의 것들을 처리하셨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규례들을 처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쓴 책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문제가 죄들과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이 네 가지 것들이 처리된다면 우리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규례들이 처리되기까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우리는 좋아질 수 없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예배 방법 등의 규례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반드시 그분에 의해 없어져야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아를 못 박으셨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한 한 새사람의 창조를 위한 것임을 들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한 새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규례들을 없애 버리실 필요가 있었다. 나누어지게 하는 규례들을 자신의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고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규례들 때문에 극도로 분리되었었다. 그러나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본질로 새로운 한 실체로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 단체적인 사람인 교회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규례들을 없애 버린 것이나 새사람의 창조에 관하여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들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다.

### 교회의 가장 높은 방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엑클레시아(ekklesia)’,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중이라고 인식한다. 형제회는 교회의 이러한 방면을 강조해서 ‘엑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정확한 표현인 ‘회중(assembly)’으로 번역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교회에 관한 조금 더 전진된 개념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가정이라는 것이다. 교회에 관한 더 높은 이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보는 것이다. 교회에 관한 가장 높은 이해는 교회가 한 새사람이라는 것이다. 교회에 관한 이 네 가지 개념은 마치 교육제도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대학교의 네 단계와 같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유치원 수준인 회중으로부터 대학교 수준인 한 새사람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다.

회중, 즉 모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가깝지 않다. 가정의 식구들 사이의 관계는 보다 가깝고 친밀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 지체들 사이의 관계는 더 가까운 것이다. 회중과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떨어질 수 있지만 몸의 지체들은 잘려 나가지 않는 한, 몸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몸이 어디에 가든지 지체들도 함께 가야 한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나 한 새사람 안에서의 교통은 몸 안에서의 교통보다 훨씬 더 친밀하다. 새사람은 단체적이며 우주적이다. 많은 믿는 이들이 있지만 우주 안에는 다만 한 새사람이 있을 뿐이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새사람의 구성 요소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사람에 관한 빛을 더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 관한 이러한 방면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음을 시인해야 한다. 교회의 새사람의 방면은 최근에 열린 새로운 발견이다. 나는 주님께서 조만간 한 새사람에 관해 더욱 계시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가정은 회중보다 더 친근하고, 몸은 가정보다 더 높으며, 새사람은 몸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새사람에 이를 때 우리는 교회의 가장 높은 방면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회중과 가정과 몸에 대하여 많이 말했지만, 한 새사람의 문제를 다룬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부족은 <새 미국 표준역(NASB)>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대한 통탄할 만한 번역에서 입증된다. 이 번역본에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22절에서 ‘옛 자아를 벗어 버리고’라고 하였고, 24절에서는 ‘새 자아를 입으라’라고 하였다. 얼마나 심각한 번역의 실수인가! <개역 표준역(RSV)> 또한 ‘옛 본성을 벗어 버리고’와 ‘새 본성

을 입으라'라고 번역함으로써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실수는 번역을 맡은 역자들에게 합당한 지식이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바인(W. E. Vine)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바인은 그의 <신약 단어 해설 사전(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에서 4장 24절의 새사람이 2장 15절에서 언급한 바로 그 새사람이므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새사람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라는 두 백성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적인 실체임에 틀림없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새사람을 얻으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없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몸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몸에 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새사람에 관하여 거의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교회의 이러한 방법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 한 단체적인 사람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한 새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바울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엡 4:22).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개인이 아닌 단체적인 실체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사람을 단수와 복수로 모두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 통치하게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항상 한 단체적인 사람을 얻으시는 것임을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체적인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고, 이제 하나님은 새사람을 얻으실 필요가 있다. 이 새사람을 산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죄와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사탄과 세상을 처리하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또한 규례들을 없애 버리셔야 했다. 하나님께서 새사람을 얻으시는 것을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규례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옛사람과 사탄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규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들의 용서나 거룩함이나 사탄을 이기는 것이나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한 새사람의 창조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장 16절과 같은 절들에는 익숙하지만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익숙하지 않다. 이 절은 이렇게 말한다.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 버리셨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규례들을 없애 버리시고 십자가로 적대감을 소멸하신 것이 구속을 성취하거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게 된다.

### 모든 창조물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옛 창조물 전체가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육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살아 있는 창조물을 상징하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성전 안의 휘장으로 예표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창조물이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 더욱이 성전 안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룹도 함께 찢어졌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피조물이 못 박혔음을 상징한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이다.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대답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새 신자에게 던진다면, 그는 아마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대답할 것이다. 좀 더 진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대답할 것이다. 더욱 진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주와 자기 자신과 마귀가 모두 십

자기에 못 박혔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들보다 더욱 진보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구주와 자기 자신과 마귀와 세상이 못 박혔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성숙하고 빛 비춤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에 관해 계속해서 질문한다면, 그는 구주와 자기 자신과 사탄과 세상과 모든 창조물이 거기에 못 박혔다고 말할 것이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언급한 다섯 항목뿐만 아니라 규례들까지도 포함해서 대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옛 창조물을 종결하였다. 우주 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끝났다.

###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사람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 버리셨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육체 안에서 새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끝내셨다. 부정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끝난 반면에, 긍정적인 새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받아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자기 육체 안에서’와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두 구(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나는 한 새사람의 일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정적인 것들을 끝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다.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죽음은 부활의 관문이며 우리를 부활로 인도한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 죽음은 그분을 부활로 이끌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더 이상 육체 안에 계시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은 놀라우신 영이시다. 우리 옛사람이 끝난 것은 그분의 육체 안에서였지만, 우리가 한 새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놀라우신 영 안에서였다. 우리의 옛사람과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관련된 규례들은 제거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놀라우신 영 안에서 우리는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또한 놀라우신 영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

### 새사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구(句)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한 새사람인 교회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한 새사람이 창조되는 영역이자 본질이심을 가리킨다. 그분은 새사람의 요소 자체이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난 후에 그분 안에서 새로운 본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요소가 되셨다. 우리의 이전 본질에는 죄가 있었으므로, 옛사람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도 새사람의 창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놀라운 본질이 있으며 그 본질 안에서 한 새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인성 안으로 일해 넣어진 하나님의 본성으로 한 새사람인 교회를 창조하셨다. 이 신성한 일은 새로운 것이었다. 옛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어떤 창조물에게도, 심지어 사람에게도 일해 넣지 않으셨다. 그러나 한 새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 안으로 일해 넣어져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한 실체가 되었다.

### 새사람의 창조에 관한 진리를 위한 전쟁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한 새사람이 신성한 본질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은 그들을 두렵게 한다. 이 때문에 마귀의 권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한 새사람의 창조의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 끝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음을 깨닫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투명하고 냉철한 생각을 주시

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고 새로운 본질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졌음을 믿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 당신이 그분 안에 넣어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새사람으로 창조된 것도 믿어야 한다. 이전에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당신을 끝내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 안에서 당신을 신성한 본질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 안에 넣으셨다는 것을 들어 본 일이 있는가? 이러한 개념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을 주의 깊게 기도로 읽어 본다면 빛이 올 것이다. 우리는 회장에 있는 그룹으로 상징된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했으므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 넣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그분은 우리를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 둘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구(句)를 무시하지 말라. 그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사람으로 창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새사람의 요소가 되는 신성한 본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성한 본질 안에서와 신성한 본질로써만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 이 본질이시고 이 요소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 둘로 한 새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모두는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4장, 230-237쪽)